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연구  
메타분석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유 지 연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연구  
메타분석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유 지 연

# 인 준 서

유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배 미 현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순 진 이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강 경 선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크기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전자데이터베이스(RISS)에서 2022년 4월까지 검색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1,731편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39편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조절변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39편의 논문으로부터 총 28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ES=0.31(p<.001)$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서의 효과크기는 다문화가정 아동( $ES=0.68, p<.05$ ), 외국인근로자( $ES=-0.62, p<.05$ )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 $ES=-0.12, p>.05$ )과 북한이탈주민( $ES=-0.02, p>.05$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목적에서는 언어·의사소통 영역( $ES=1.42, p<.05$ )이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회 영역( $ES=0.72, p<.05$ )의 효과크기가 높았다. 심리 영역( $ES=0.02, p>.05$ )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방법에서의 효과크기는 음악극( $ES=0.86, p<.05$ ), 악기연주( $ES=0.27, p<.05$ ), 혼합( $ES=0.27, p<.05$ ) 순으로 나타났고, 노래 중심 활동( $ES=0.15,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특성에서 전체 회기 수의 효과크기는 16-20회기( $ES=-0.28, p>.05$ )를 제외하고 21회기 이상( $ES=1.39, p<.05$ ), 10회기 이하( $ES=0.49, p<.05$ ), 11-15회기( $ES=-0.34, p<.05$ ) 순으로 나타났다.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40-60분 미만( $ES=-0.33, p<.05$ )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10명 미만( $ES=0.77, p<.05$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명 이상( $ES=0.37, p<.05$ ), 10-15명 이하( $ES=0.35, p<.05$ ) 순으로 나타났다. 16-20명( $ES=0.12, p>.05$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결과 음악치료의 전반적인 효과

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중재특성에 따른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7
1. 다문화가정	7
1) 다문화가정 정의	7
2)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	8
3) 다문화가정의 특성	14
2. 음악치료	19
1)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19
2)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분석 연구 고찰	23
III. 연구 방법	25
1. 메타분석	25
1) 메타분석의 이해	25
2. 연구 대상 논문 수집과 선정	30
1) 분석 대상 및 범위	30
3. 자료 처리와 분석	33
1) 자료의 코딩	33
2) 통계분석	33

3) 분석 논문 변인 추출 및 선정 .....	33
<b>IV. 연구 결과 .....</b>	<b>36</b>
1. 메타분석 결과 .....	36
1) 분석 논문 일반적 특성 .....	36
2) 전체 평균 효과크기 .....	38
3) 이질성 검정 .....	39
4) 조절변수별 효과크기 .....	39
5) 출판편향 분석 .....	43
<b>V. 결론 및 제언 .....</b>	<b>45</b>
1. 결론 .....	45
2. 제언 .....	4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	10
<표 II-2>	2020년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상위 10개국) .....	11
<표 II-3>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	12
<표 II-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E-9, H-3) 현황 .....	12
<표 II-5>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	13
<표 II-6>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연령별 현황 .....	13
<표 III-1>	효과크기의 산출 공식 .....	27
<표 III-2>	연구목적 세부 분류 기준 .....	34
<표 IV-1>	분석 논문 일반적 특성 .....	36
<표 IV-2>	전체 평균 효과크기 .....	39
<표 IV-3>	연구대상 효과크기 .....	40
<표 IV-4>	연구목적 효과크기 .....	40
<표 IV-5>	중재방법 효과크기 .....	41
<표 IV-6>	전체 회기 수 효과크기 .....	42
<표 IV-7>	회기당 소요 시간 효과크기 .....	42
<표 IV-8>	표본 수 효과크기 .....	43

##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	14
[그림 III-1] 메타분석의 단계 .....	26
[그림 III-2] 분석 대상 선정 절차 .....	32
[그림 IV-1] 깔때기 그림(funnel plot) .....	4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현재 한국 사회는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로 인해 과거 단일민족에서 벗어나 다문화민족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영숙, 우정한, 2012). 1950년대 이후 국내 외국인 주민은 일부 주한 미군에 한하였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고용,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등 다양한 유입 경로로 인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국내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 비율의 2.3%였으나(행정안전부, 2011),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1.8배 상승한 4.1%를 차지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통계청(2020)에 따르면 2040년에는 국내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오랜 자부심은 여전히 국가의 국민을 동질적인 민족으로 전제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이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이명진, 최유정, 최셋별, 2010).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20-40대 다문화수용성지수 평균은 54.9%이며, 50-60대는 49.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특히 50-60대의 경우 그 인구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행정안전부, 2021), 전 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한 국내 평균 다문화수용도지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이민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2%로, 브라질, 독일, 미국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평균인 5.8%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WVS,

2017; 김미영, 2021 재인용).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한국 사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북미 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정보다 동남아,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출신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다(신재현, 김상운, 2013). 그들은 자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이주 후에도 한국 사회의 차별로 인해 직업 선택의 기회가 한정적으로 제공된다(김지혜, 2019).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27.9%로 자국민 13%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 중 47.6%의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언어의 습득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주변과의 소통 문제를 겪는다(김영숙, 우정환, 2012). 소통의 문제는 차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62.3%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고, 56.6%가 말투나 억양에 의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지혜, 2019).

이처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 차별의식과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응과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있다. 양옥경, 김연수(2007)의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 중 42.3%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법무부, 2021), 그들은 경제적 후진국 출신이라는 편견을 받게 되면서 가정 내와 한

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김수연, 2011).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은 단순히 이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소통의 문제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학업 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또한 생김새의 차이로 학교생활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정서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신혜선, 2008; 정진숙, 2016). 실제로 여성가족부(2019)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63.3%는 학교 공부의 어려움, 53.5%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말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차별적인 시선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한계로 직무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업무 수련도가 낮다(이관형, 2011). 이에 근무 환경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낮은 임금, 초과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임채완, 선봉규, 2015).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가 탈북 전과 탈북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다(김종곤, 2014). 외상 경험은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다른 말투나 생활 습관에서 발생하는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국내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

여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취업 및 가족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리 상담과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예술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힘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춰 비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내적 욕구와 갈등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이모영, 2010; 박민정, 2014).

이에 따라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음악치료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임상이 실행되어왔고 관련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임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음악치료 관련 논문은 2008년 석사학위논문 1편을 시작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포함하여 매년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음악치료에서도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하게 다루는 변인으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언어적 지원이 있다. 심리적으로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외국인근로자의 우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오준, 황은영, 2018),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 향상과 부정 정서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정의용, 문지영,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음악이 주는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표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진선주, 2015). 사회적으로는 집단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데(홍민주, 순진이, 2017), 이는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운 감정적 교류를 촉진시켜 대인관계 확립과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Gooding, 2011). 언어적으로는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음악 활동이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과(최애나, 2012), 음악을 적용한 한국어학습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이주연, 박

성욱, 2012). 이를 통해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음악이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거나 가사 만들기 등 언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적 매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정현주, 2019).

한편,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메타분석은 시행되지 않았다. 오지연(2022)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의 종합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총 20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한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효과크기는 알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중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한다면 그들을 위한 음악치료의 전체 효과크기뿐만 아니라 각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제공하고 향후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표된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 음악치료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 중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실험-통제집단 및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1.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1.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2.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조절변수별(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 당 소요 시간, 표본 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 1) 다문화가정 정의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혼혈인가족 등의 용어로 불렀다(김수연, 2010). 그러나 혼혈아, 국제결혼 등의 용어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따라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편견을 걷어낸 새로운 명칭 사용을 제안하였고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수희, 2020).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기관 및 단체에 따라 달라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적 취득자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전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국제결혼가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에 결부된 의미가 아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의미로써 결혼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함께 포함하며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신재현, 2013).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

이다. 법률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한국에서 결혼하였거나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를 함께 포함한다. 정책적으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에 국내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북한 주민을 뜻한다.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탈북자’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5년에 ‘탈북자’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새터민’ 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그러나 탈북단체에서 ‘새터민’ 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새터민’ 용어 사용을 줄이고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을 공식 명칭으로 지정하였다(통일부, 2020).

## 2)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

### (1) 국내 다문화가정의 형성 배경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내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진구,

2012). 그 후 199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회적 이슈와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었다(김수림, 2018).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하는 남아선호사상으로부터 발생한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하나의 대안으로써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박경동, 2007). 특히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촌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일어났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하는 비율이 급증하게 되었다(김영숙, 우정환, 2012).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을 해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제결혼 시장은 더욱 활발해졌다(함정현, 황창주, 소광섭, 2008).

또한 1990년대에 한중수교로 인해 조선족이 국내 노동인구로 유입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김미영, 2020). 이후 국내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늘어났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붕괴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세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였다(김병철, 2002). 이들은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태국 등과 같은 주변 국가로 이주하게 된다. 이 중 한국에서는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불법체류로 인해 신분의 불안정을 겪게 되는 제3국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지원적 분위기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이우영, 2003).

## (2)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국내 결혼이민자는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결혼이민자 비율이 줄어들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2.73%로 나타났다(법무부 통계연보, 2020). 그러나 최근 5년간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약 83% 비율을 매년 유지하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약 17%에 불과하다.

<표 II-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구 분	계	전년 대비 증감	여	남
2016	152,374	0.5%	128,518	23,856
2017	155,457	2.0%	130,277	25,230
2018	159,206	2.4%	132,391	26,815
2019	166,025	4.3%	137,094	28,931
2020	168,594	1.5%	137,878	30,716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국적별 현황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한국계중국인,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 -2> 2020년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상위 10개국)

국적(지역)별	소계	여	남
전체	168,594	137,878	30,716
베트남	44,058	40,836	3,195
중국	37,492	31,981	5,511
한국계중국인	22,580	14,268	8,312
일본	14,595	13,351	1,244
필리핀	12,003	11,500	503
태국	5,929	5,818	111
캄보디아	4,638	4,172	466
우즈베키스탄	2,625	2,461	164
몽골	2,486	2,306	180
대만	168,594	30,716	137,878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3)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2016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은 <표 II -3>과 같다.

<표 II -3>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장기 체류	1,530,539	1,583,099	1,687,733	1,731,803	1,610,323
단기 체류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계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전년 대비 증감	7.9%	6.4%	8.6%	6.6%	-19.4%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다음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체류 현황이다. 이 중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E-9)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와 특례 고용허가제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다음 <표 II -4>와 같다.

<표 II -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E-9, H-3)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수(만명)	53.4	51.8	53	50.3	39.1
전년 대비 증감	-2.7%	-1.6%	1.2%	-2.7%	-11.2%

출처 :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4)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2만명, 2016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통일부, 2020). 또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통일부, 2020).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통제되어 입국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성비는 2016년부

터 2020년까지 여성의 비율이 전체 평균 약 79.4%를 차지한다.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표 II-5>와 같다.

<표 II-5>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구 분	계	여	남
2016	1,418	1,116	302
2017	1,127	939	188
2018	1,137	969	168
2019	1,047	845	202
2020	229	157	72

출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통일부, 2020)

(5)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

다문화가정 아동 수는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년 만 6세 이하의 아동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으며, 만 7-12세 아동 수는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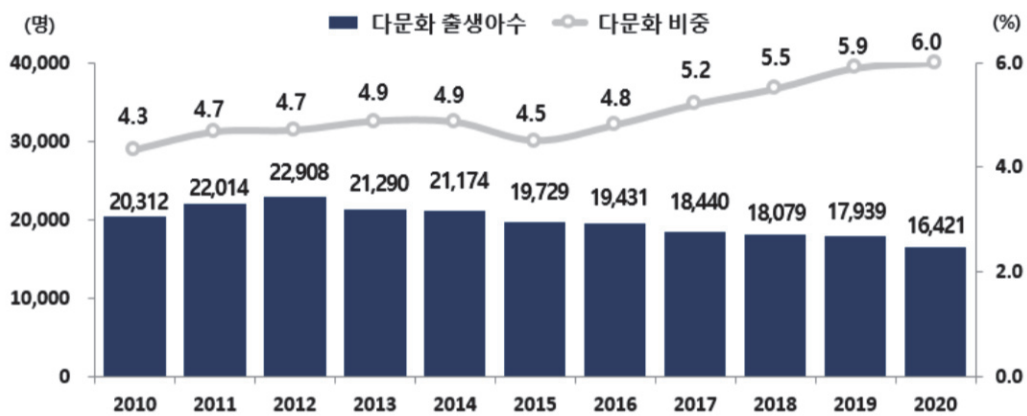
<표 II-6>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8	237,506	114,125	92,368	19,164	11,849
2019	264,626	117,045	104,064	26,524	16,993

출처: 2019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20).

다문화 출생아 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II -1] 연도별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출처 :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 2021).

### 3) 다문화가정의 특성

#### (1) 결혼이민자의 특성

결혼이민자는 이주 후 모국의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의사소통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이주 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질수록 의사소통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24.8%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국내 유입되는데(여성가족부,

2018), 이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문화나 언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김현수, 최연실, 2012). 성상환, 한광훈(2011)이 결혼이주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 중 37.9%가 한국에서 겪는 갈등의 원인은 언어 부적응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는 결혼생활 적응 및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남편과 시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거나 누적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불화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기숙, 2010). 국가인권위원회(2019)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특히 욕설이나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83%가 여성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가 서투른 결혼이주여성은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언어·사회적 장벽 스트레스와 불안, 차별의 문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같은 또 다른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는데(지은진 외, 2012), 이한동(2007)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정착 과정 속에서 큰 우울감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자리가 대부분 부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아 경제적 빈곤 현상에 쉽게 노출된다(고수정, 김순양, 2017).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한국어 어려움이나 차별 등으로 인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2019)의 조사에 응답한 결혼이민자 중 20-30대의 연령대의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이 가장 많았으나, 응답자의 70.7%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약 60%가 개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나타낸다.

## (2)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모국에서의 가족과 이별을 겪고 한국 노동 현장에서 낮은 임금, 장시간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 직장 내 차별, 산업재해의 위험 등을 경험한다(김범준, 2017). 특히 이는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방문취업제(H-2)와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 등의 3D 업종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김범준, 2017).

통계청(2021)에서 실시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34.2%, 소득없음이 25.9%, 100-200만원 미만인 18.6%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총소득에서 100-200만원 미만이 48.7%로 나타난 것에 비해 평균 임금수준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와 인권 연구소(2020)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이 29.0%로 나타났고,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56.2%였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근로 시간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1주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48.3%로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인격적 무시 등의 부당한 대우와 폭행을 비롯하여 작업 중에 부상 혹은 질병과 같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김기태(2021)는 외국인근로자 1,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전체 노동자의 4.7%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2.8%가 폭행, 12.3%가 인격적 무시, 3.1%가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이

러한 결과는 ‘1년 동안의 경험’에 대한 문항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비율이 아니다. 또한 15.3%는 무거운 짐이나 기계,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앓았으며, 19.8%는 지난 1년 사이에 작업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김기태, 2021).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장과 관련된 고충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8년 UN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하며 국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참여연대, 2018).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주거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20%로 이 중 집의 견고함과 균열 상태와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안정성 등 주거 안정성에 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그들이 겪는 불안정한 노동 및 주거 환경과 사회적 차별적 대우뿐만 아니라 언어·신체적 폭행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이명선, 2008).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원인이 되어 폐쇄된 대인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

###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생활부터 북한 탈출 과정, 제3국에서의 체류 생활, 남한으로의 입국 과정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외상을 경험한다(박민음,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은 크게 이주 전과 이주 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주 전 외상 경험으로는 북한 내에서 겪었던 식량난으로 인한 굶주림, 구타, 고민, 강제 노역 등과 같은 육체적 외상과 감금, 감시, 세뇌, 공개처형 목격 등과 같은 정치 사상적 외상, 가족의 굶주

림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 목격과 같은 가족과 연관된 외상 경험이 있다(김현경, 전우택, 2009). 이주 과정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는 음식과 식수 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강제 복송될 위기의 불안과 공포 경험, 브로커로 인한 인신매매, 노동착취, 금전 갈취, 성폭력 피해 등의 외상을 겪기도 한다(박민음, 2020; 김현경, 전우택, 2009).

이주 전과 이주 후에 걸쳐서 겪게 되는 외상은 단일 외상 경험이 아닌 복합적이고 누적된 외상 경험으로 나타나는데(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이러한 이주 배경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 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증세가 주로 나타난다. 강성록(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95명들 중 27.4%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을 보였다. 서주연(2006)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그들 중 45.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임을 밝혔다. 또한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2010)의 연구에서는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 중 48%가 우울 및 불안 문제를 호소하였다.

#### (4)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중문화 환경의 특수성을 가지며 취약한 언어와 교육 환경,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운데 성장하게 됨으로써 심리·사회적 문제, 정체성 혼란 등을 겪게 된다(정은희, 이에스더, 2020). 선천적으로 갖는 또래와 다른 외모는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스스로 자신의 외모나 가정환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정체성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한 다문화

가정 아동은 적절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여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된다(서현, 이승은, 2007).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생활에서 학습 부진 문제로 연결되거나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이혜원, 2013). 여성가족부(2018)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학교 공부가 어렵고 또래 관계 적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로 보면 0-11세의 경우 학교 공부 어려움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고, 12-14세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림이 어렵다는 응답이 65.1%였다. 외모가 달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도 23.8% 있었다. 15-17세는 학교 공부 문제가 78.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18-24세는 학교에서 교사나 교수의 차별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0.3%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중문화 환경을 조화롭게 융화하지 못하여 정체성 혼란을 겪고 언어 지연으로 인한 학습 결손,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갈등 문제가 심화된다고(박은애, 2007). 그들은 무능력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며 학교 부적응 문제가 이후 사회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경자, 2008).

## 2. 음악치료

### 1)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 (1) 심리 영역

음악은 비언어적 매개체로 언어적 기술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게 접근하기에 유용하다. 음악 감상과 연주를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고(최애나, 2019), 외부로 표출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문제를 음악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조경애, 강경선, 2014). 특히 음악은 억압된 분노와 적대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고(Liderman, 1967), 집단으로 하는 음악 활동은 우울로 인한 위축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 신뢰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박진숙, 2009).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모국의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음악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어 그들이 한국 문화에 속한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촉하고 습득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오선화 외, 2016).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적 영역을 다룬 음악치료 선행연구로 오선화 외(2016)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밝혔으며, 정현정(2009)은 북한 이탈주민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참여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곽현진(2012)은 타악기 중심 음악치료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고,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2016)은 음악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악이 주는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 지각과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내적 자원이 강화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정현정, 2009). 또한 음악을 통한 정서적 환기와 쾌락적 경험이 부정 정서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Roederer, 1975).

## (2) 사회 영역

사회적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에는 집단음악치료가 효과적이다. 집단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Davis, Gfeller & Thaut, 2002), 이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음악 안에서 경험하거나 쉽게 표현하도록 하여 그룹원들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기술 습득 및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은선, 2008).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는 그룹원들과 함께 성공 경험을 갖고 비경쟁적 성취를 얻는 과정 안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가지도록 돕는다(김정은, 2003).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로 이지인(2020)은 타악기 합주 중심의 그룹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김지영(2021)은 악기 앙상블 그룹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함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응심, 공감 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강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정현주, 2019).

또한 성한나, 김영신(2017)은 창작 음악극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 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으며, 김소리, 문소영(2018)은 창작 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의 하위영역인 학교환경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창작 음악극 중심 음악치료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 외부 환경을 음악을 통해 만나면서 새로운 음악적,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소리, 문소영, 2018).

### (3) 언어 영역

음악과 언어는 진동수, 진동 범위, 리듬이나 속도, 강도 등의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Cohen, 1994), 음악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주연, 2013). 특히 발성과 언어화를 자극하는 노래 활동은 언어 능력 향상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데, 다양한 가사 부르기는 어휘력 증가에 유용하고 음악의 구조를 활용한 반복적 노래 부르기는 음운 발달에 영향을 준다(정현주, 2006).

또한 음악은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를 포함하여 여러 정서반응을 일으킨다(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최병철, 2007). 이러한 음악의 특성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표현적·수용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를 유발하여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언어와 관련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로는 김경언(2013)은 발성과 노래 부르기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만 5-7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자음 정확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화형식의 노래 부르기 활동이 어휘를 표현하게 하고 음악이 유발하는 흥미와 즐거움 속에서 음악적 반복을 통해 자음 정확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손솔이(2017)는 동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과 언어 창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아동이 선호하는 동요를 바탕으로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는데, 동요가 상황적 맥락에 맞는 어휘 사용을 유도하고 노래 가사에서 습득한 어휘를 이용하여 노래를 재창작하는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창

의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나타낸다.

## 2)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분석 연구 고찰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박민정(2014)과 이지인(2019)의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오지연(2022)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문헌 고찰이 있다.

박민정(2014)의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다문화가정 대상 음악치료 선행연구 총 26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가정 관련 연구가 1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대상이 주를 이루었다. 중재 목적으로는 심리 영역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의사소통 영역이었으며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는 부재하였다. 설계 방법에서는 실험연구가 기술 연구보다 많았고 실험연구 16편 중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중재 방법으로는 노래 활동과 악기연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목적별로 언어·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 활동, 심리 영역에서는 노래, 연주, 음악 감상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지인(2019)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행연구 총 55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총 36편, 아동 대상이 총 21편으로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양적연구가 총 33편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중재 목적으로는 심리·정서 영역이 총 24편으로 가장 많았다. 중재 특성으로는 그룹세션 형태가 총 42편이었고 연구 대상자 수는 1-5명, 치료 기간은 6-19주, 총 회기 수는 11-15회기, 중재 시간은 40-49분이 가장 많았고, 음악 중재 방법으로는 노래 활동이 총 39편으로 음악 감상, 악기연주 등의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오지연(202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선행 연구 총 33편을 선정하여 항목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20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7편 정도의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 자녀 대상이 24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 분석이, 목표 영역으로는 정서 영역이 가장 많았다. 중재 방법은 노래 활동의 비중이 높았으며 치료 형태는 그룹치료가, 총 회기 수와 중재 시간은 11-12회와 40분 이하가 가장 많았다. 메타분석 결과 전체 평균 효과 크기는  $ES=-0.127$ 로 나타났다. 목적 영역에서는 언어영역( $ES=15.877$ )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졌고, 다음으로 사회영역( $ES=0.711$ ), 정서영역( $ES=-0.184$ ), 행동영역( $ES=-0.289$ ) 순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방법

#### 1. 메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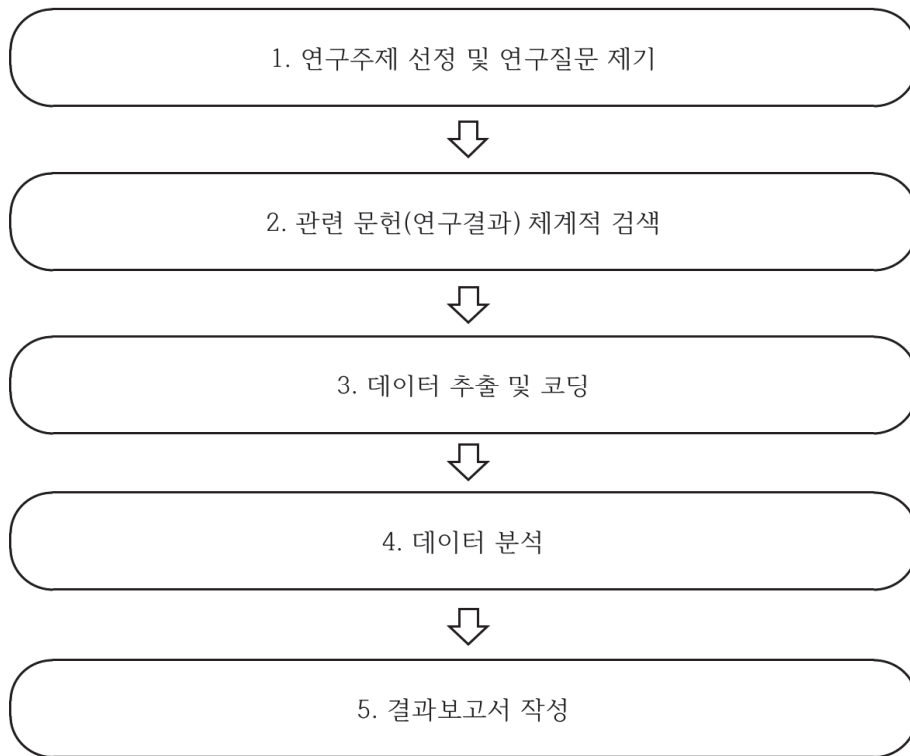
##### 1) 메타분석의 이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인 분석 방법으로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황성동, 2020). 특정 주제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었을 때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 및 일반화할 수 있다(오성삼, 2002). 메타분석은 Glass와 Smith(1977)가 375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교육학 및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장덕호, 신인수, 2011).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러티브 고찰 혹은 문헌 고찰과 체계적 리뷰, 양적연구를 토대로 하는 메타분석과 질적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메타통합법이 있다(서미옥, 2011).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 문헌 고찰은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을 배제하기가 힘들고 연구 결과가 많아질수록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이 개발되었고, 이 중 메타분석은 계량적인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메타분석은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황성동,

2020).

이러한 메타분석의 진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되며 조사연구의 단계인 연구주제 선정, 문헌의 검색,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의 순서와 비슷하다(Beyne, 2010; Littell et al., 2008; Polanin & Tanner-Smith, 2014, 황성동, 2020에서 재인용). 메타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메타분석의 단계

(1) 효과크기 산출 및 해석

효과크기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화된 단위로 메타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효과크기는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 설계나 제시된 통계적 수치 자료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연속형 일원적 데이터로 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Cohen's d와 Hedges' g 방정식을 이용한다. 분석 대상의 표본의 크기가 다양할 때 Cohen's d의 경우 표본이 작은 연구의 효과크기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정된 Hedges' g를 활용하였다. 단일집단의 경우 다른 공식을 활용하게 되며, 사전-사후검사의 상관계수를 필요로 한다.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효과크기의 산출 공식

Cohen's d (효과크기)	$d = \frac{\bar{X}_1 - \bar{X}_2}{S_p}$	ES(효과크기) = d $\bar{X}_1$ = 실험집단의 평균 $\bar{X}_2$ = 통제집단의 평균
실험-통제 (사후검사)	Hedges' g (교정된 효과크기) $g = J \times d$ $J = \left[ 1 - \frac{3}{4(n_1 + n_2) - 9} \right]$	J = 교정지수 $n_1$ = 실험집단의 표본 수 $n_2$ = 통제집단의 표본 수
표준화된 평균 차이	$S_p = \sqrt{\frac{(n_1 - 1)S_1^2 + (n_2 - 1)S_2^2}{(n_1 + n_2 - 2)}}$	$S_1$ =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S_2$ =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표준화된 평균 차이		$\bar{X}_{post}$ = 사후검사의 평균

---


$$d = \frac{\overline{X}_{post} - \overline{X}_{pre}}{S_p}$$

$\overline{X}_{pre}$  = 사전검사의 평균

$r$  = 사전-사후 상관계수

$$S_p = \frac{S_{diff}}{\sqrt{2(1-r)}}$$


---

단일집단

사전-사후  
차이의  
표준편차

$$S_{diff} = \sqrt{S_1^2 + S_2^2 - (2 \times r \times S_1 \times S_2)}$$

$$df(\text{자유도}) = (n - 1)$$

$$J = 1 - \left( \frac{3}{4df - 1} \right)$$


---

분석 논문의 개별 통계값을 효과크기로 변환시킨 후에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에 따라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계산 모형을 선택할 때는 분석 대상 연구가 동질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의 설계, 방법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상 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88)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효과크기가 0.10-0.30는 작은 크기의 효과크기, 0.40-0.70은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 0.80 이상은 큰 크기의 효과 크기라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은 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구간을 나타낸다. 이 때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신뢰구간의 폭은 좁아지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된다(황성동, 2016).

## (2) 이질성 검증

메타분석을 하면 개별 연구에서 도출되는 효과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크기 간의 차이를 효과크기의 이질성이라고 부르며 이질성이 클수록 연구 간 효과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황성동, 2016).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에 사용되는  $Q$ 값은 각 효과크기들의 관찰된 분산을 의미하며,  $df$ (자유도)는 각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크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대하는 기대분산의 값을 의미한다(황성동, 2020). 다음으로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에 사용되는 지수에는  $I^2$ 가 있는데 이는 총분산에 대한 실제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Higgins, Thompson, Deeks와 Altman(2003)에 따르면  $I^2$ 값이 25%면 작은 크기의 이질성, 50%면 중간 크기의 이질성, 75% 이상이면 큰 크기의 이질성으로 해석된다.

## (3) 출판편향

출판편향은 메타분석 시 출판된 결과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편향을 의미하며, 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만 반영하는 경우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출판편향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이 있다.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깔때기 그림은 x축에는 효과크기를, y축에는 표준오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는 그래프의 상단에 위치하고, 가운데 직선인 평균 효과 크기 주변에 몰려있게 된다(황성동, 2016). 또한 대각선은 각각의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깔때기 그림을 이용하여 출판편향을 판단할 때는 시각적으로 그림이 좌우대칭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림이 좌우대칭이라면 출판편향이 적고 비대칭이라면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조절효과 분석

메타분석에서 조절효과 분석은 하위 집단 간의 효과크기 차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며 평균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황성동, 2016). 조절변수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로 분류하였다. 조절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메타 ANOVA,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메타 회귀분석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대상 논문 수집과 선정

### 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분석 대상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음악치료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였고, ‘다문화’와 ‘음악’, ‘음악치료’, ‘국제결혼’, ‘북한이탈’, ‘탈북’,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와 ‘음악’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총 1,73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1차 검토에서는 키워드 미포함 자료와 중복 논문, 원문열람 불가 자료 총 1,304편을 제외하였다.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는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수치가 자세히 제시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술지는 비교적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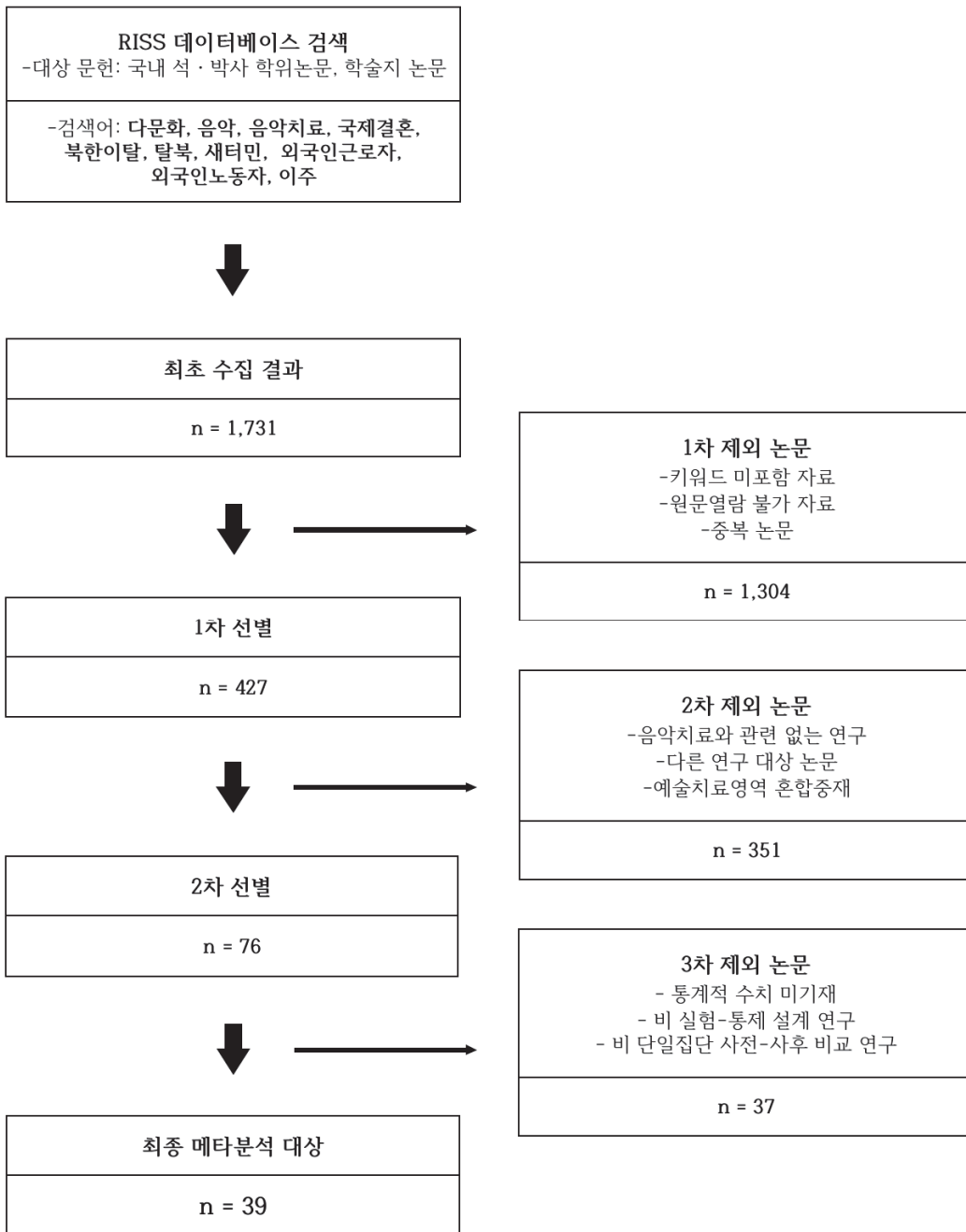
한 결과를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 출판편향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을 선택하였다. 2차 검토에서는 음악치료 관련 연구가 아니거나 다른 연구 대상, 예술치료영역 혼합중재 등 351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수집된 76편의 논문을 국문 초록,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양적연구로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수치(평균, 표준편차)가 제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실험-통제집단으로 집단 간 차이 비교로 설계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연구로 설계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3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절차는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분석 대상 선정 절차

### 3. 자료 처리와 분석

#### 1) 자료의 코딩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 대상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연도 연구자, 출처, 대상, 설계, 목적, 중재방법, 총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통계적 수치(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를 MS사의 Excel 프로그램에 코딩하였다.

#### 2) 통계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3.0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CMA는 미국 Biostat사에 의해 개발된 메타분석 전용 프로그램으로 현재 메타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CMA는 데이터 입력,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교한 옵션의 다양한 배열을 포함하고 있고 직관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화형 가이드를 통해 분석의 여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 3) 분석 논문 변인 추출 및 선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유형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과 그들의 자녀인 ‘다문화가정 아동’ 으로 분류하였으나 ‘결혼이민자’ 의 경우 선정된 분석 대상 논문이 모두 ‘결혼이주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으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분석 논문의 연구 대상이 북한이탈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인 경우 빈도수 편향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2) 연구목적

치료의 목적은 인간의 발달 영역에 따라 인지, 언어·의사소통, 심리, 사회, 신체·운동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민정(2014)의 연구에 따라 대상 논문의 목표로 부재한 인지, 신체·운동 영역을 제외하고 언어·의사소통, 심리, 사회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에 따라 목적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의 목적을 각각 분류하여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의 수보다 빈도수가 높게 표기되었다. 영역별 세부 분류 기준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목적 세부 분류 기준

영역	분류 기준
언어·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자기표현 등
심리	문화적응스트레스,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아개념 관련, 정서 등
사회	사회기술, 학교생활적응, 대인관계 등

## (3) 중재방법

음악 중재 방법은 다문화가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지인(2019)과 박민정

(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노래 중심 활동’, ‘악기연주’, ‘음악 감상’ 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석 논문의 중재방법으로 음악 감상을 활용한 연구가 부재하였고, 그에 비해 음악극을 활용한 논문의 빈도수가 많아 최종적으로 ‘노래 중심 활동’, ‘악기연주’, ‘음악극’ 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중재가 적용된 경우에는 혼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4) 중재 특성

중재 특성은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세션 참여 대상자 수로 분류하였다. 전체 회기 수는 10회기 이하,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회기당 소요 시간은 40분 미만, 40-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 수는 10명 미만, 10-15명 이하, 16-20명 이하, 21명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메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실험-통제 연구 39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논문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조절변수 별(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 1) 분석 논문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메타분석 대상 논문은 실험-통제집단 및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로 진행된 연구 39편이며 수집된 자료의 특성은 다음<표 IV-1>과 같다. 한 연구에 종속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나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 응답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연구목적의 빈도수가 전체 논문 수보다 높게 표기되었다. 대상 논문에서 특성 하위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도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IV-1> 분석 논문 일반적 특성

항목	범주화	빈도수(N)
연구년도	2009년	2
	2010-2015년	10
	2016-2020년	24
	2021년 이후	3

	합계	39	
출처	학술지	5	
	학위논문	석사학위	31
		박사학위	3
	합계	39	
연구설계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26	
	단일집단 사전-사후	13	
	합계	39	
연구대상	결혼이주여성	9	
	외국인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정 아동	23	
	합계	39	
연구목적	심리	194	
	사회	62	
	언어·의사소통	28	
	합계	284	
중재방법	노래 중심 활동	11	
	악기연주	9	
	음악극	4	
	혼합	15	
	합계	39	
전체 회기 수	10회기 이하	11	
	11-15회기	24	
	16-20회기	3	
	21회기 이상	1	
	합계	39	
회기당 소요 시간	40분 미만	1	
	40-60분 미만	26	
	60-90분 미만	3	

	90분 이상	8
	합계	38
표본 수	10명 미만	23
	10-15명 이하	8
	16-20명 이하	4
	21명 이상	4
	합계	39

## 2) 전체 평균 효과크기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39편의 논문으로부터 총 282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종속 변인과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에 따라 총 284개의 데이터를 코딩하였으나 표준편차 값이 0인 2개의 데이터는 분석 대상에 자동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총 28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IV-2> 와 같다. 이 때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ES=0.31$ 로 나타났으며, 이는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따라 작은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분포곡선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이 50%라고 할 때 실험집단의 평균이 62.1%로 통제집단에 비해 약 12.1% 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은 0.177, 상한값은 0.437으로 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며, 유의확률이  $p<.0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전체 평균 효과크기

모형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i>U3</i>	p값
랜덤	282	0.31	0.177	0.437	62.1%	.000***

\*\*\* $p < .001$

### 3) 이질성 검정

산출된 전체 효과크기의 신뢰성을 위해 선정된 분석 대상 자료간 이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2093.868(df=281, p<.001)$ 으로 효과크기에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ggins, Green(2011)에 따르면  $I^2$ 값이 75% 이상이면 큰 크기의 이질성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의  $I^2$ 값은 86.6%로 이질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4) 조절변수별 효과크기

본 연구의 분석 논문 대상이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 연구간 효과크기 차이를 검증하고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를 조절변수로 분류하여 메타 ANOVA를 실시하였다.

#### (1) 연구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대상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IV-3>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효과크기는  $ES=0.6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효과크기는

ES=-0.62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 간의 효과크기는  $Q=52.255(df=3, p<.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 연구대상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결혼이주여성	64	-0.12	-0.389	0.146	52.244	3	.000***
외국인근로자	25	-0.62	-1.029	-0.218			
북한이탈주민	27	-0.02	-0.414	0.373			
다문화가정아동	166	0.68	0.515	0.848			

\*\*\* $p < .001$

(2)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IV-4>와 같다. 언어·의사소통 영역의 효과크기가 ES=1.4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영역의 경우 ES=0.72로 나타났다. 심리 영역은 효과크기가 가장 낮으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목적 간의 효과크기는  $Q = 50.042(df = 2, p < .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 연구목적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심리	62	0.02	-0.127	0.174	50.042	2	.000***
사회	192	0.72	0.455	0.988			
언어	28	1.41	0.998	1.831			

\*\*\* $p < .001$

(3) 중재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IV-5>와 같다. 음악극의 효과크기가 ES=0.86로 가장 높았으며, 악기연주와 혼합의 경우 ES=0.27로 나타났다. 노래 중심 활동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방법 간의 효과크기는  $Q=9.054(df=3, p<.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5> 중재방법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노래 중심 활동	64	0.15	-0.119	0.423	9.054	3	.029**
악기연주	72	0.27	0.019	0.526			
음악극	30	0.86	0.470	1.269			
혼합	116	0.27	0.069	0.471			

\* $p < .05$

(4)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IV-6>과 같다. 21회기 이상이 ES=1.39로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10회기 이하가 ES=0.49, 11-15회기가 ES=0.34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16-20회기의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Q=15.014(df=3, p<.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6> 전체 회기 수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10회기 이하	69	0.49	0.224	0.750	15.014	3	.002**
11-15회기	172	0.34	0.171	0.501			
16-20회기	37	-0.28	-0.642	0.086			
21회기 이상	4	1.39	0.196	2.585			

\*\* $p < .01$

(5)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IV-7>과 같다. 40분 미만, 60-90분 미만, 90분 이상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0-60분 미만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효과크기는  $ES=0.33$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Q=1.418(df=3, p>.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 회기당 소요 시간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40분 미만	7	0.26	-0.548	1.062	1.418	3	.701
40-60분 미만	207	0.33	0.175	0.479			
60-90분 미만	7	0.672	-0.134	1.478			
90분 이상	58	0.196	-0.098	0.490			

(6)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IV-8>과 같다. 10명 미만의 효과크기가 ES=0.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명 이상이 ES=0.37, 10-15명 이하가 ES=0.35로 나타났다. 16-20명 이하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Q=56.467(df=3, p<.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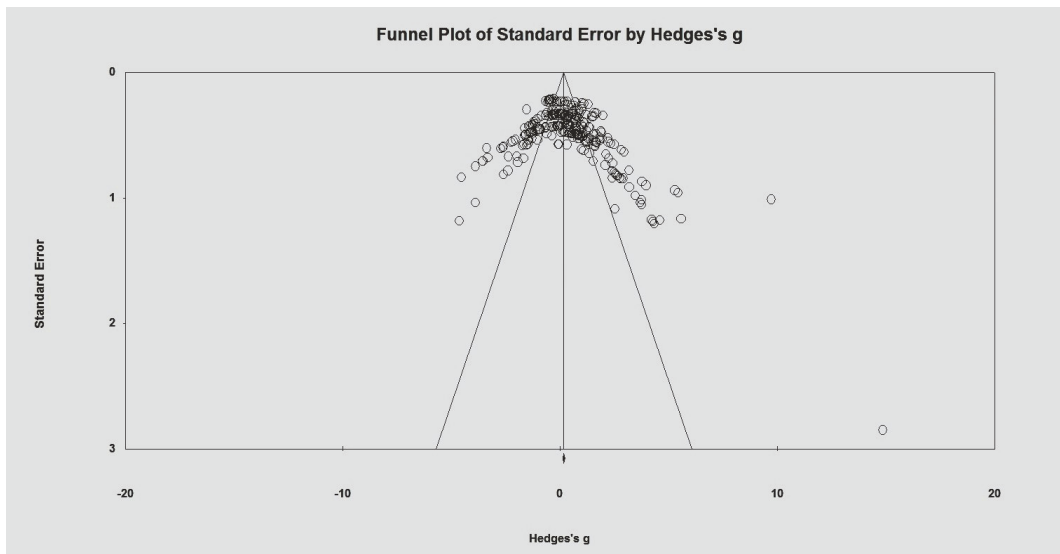
<표 IV-8> 표본 수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10명 미만	136	0.77	0.568	0.951	56.467	3	.000***
10-15명 이하	85	-0.35	-0.575	-0.123			
16-20명 이하	25	0.12	-0.278	0.511			
21명 이상	36	0.37	0.044	0.690			

\*\*\* $p < .001$

5) 출판편향 분석

선정된 자료에 출판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IV-1]과 같다. 이때 가로축은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 세로축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출판편향이 없는 경우 좌우대칭의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의 깔때기 그림 결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좌우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자료 간 편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깔때기 그림(funnel plot)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자데이터베이스(RISS)에서 2022년 4월까지 검색된 다문화가정 음악치료 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총 39편의 논문에서 282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연구 대상, 연구목적, 중재 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 당 소요시간,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ES=0.31(p<.001)$ 로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따라 작은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난 것은 조절변수별 분석 결과 중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가진 변수의 빈도수가 가장 낮은 것에 영향을 받았음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대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음악치료가 그들에게 효과적인 중재 방법임을 시사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을 실시한 오지연(2022)의 연구와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효과를 분석한 홍은주, 여정윤(201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언어·의사소통 영역을 목적으로 음악치료를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 영역이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활동이 사회성 향상에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홍희래(2016)과 음악치료의 사회적응 향상 효과성을 입증한 민정희(201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음악치료가 언어 능력에 큰 효과크기가 있었다는 박선옥(201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심리 영역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지연(2022)의 음악치료 메타분석 연구 결과 중 심리 영역의 효과크기 분석 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음악치료가 표현 및 수용·비음성적 요소의 확장 등 그들의 언어·의사소통 능력을 촉진시키고 음악 환경 안에서 집단원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향상에 더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중재방법에서는 음악극이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악기연주와 혼합 중재 순으로 효과적이었다. 노래 중심 활동의 경우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료에서 큰 효과크기가 나타났다는 김여경(2015)와 악기연주 중심 음악 중재의 효과성을 입증한 김한나(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노래 중심 음악치료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김미애(2021), 임정희(201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맥락을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 논문 중 음악극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즉흥연주 위주이거나 활동이 혼합적임을 고려하였을 때,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는 언어를 위주로 사용하는 노래 중심 중재보다 악기연주를 활용한 중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중재 특성을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로 분류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21회기 이상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회기 이하, 11-15회기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1회기 이상의 빈도수는 4편에 불과하여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40-60분 미만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10명 미만, 21명 이상, 10-15명 이하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 2.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논문의 특성 중 다문화가정 아동과 결혼이민자 대상 연구가 많고 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대상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치료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 대상의 편향성을 줄이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폭넓은 음악치료 연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둘째, 메타분석의 분석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양적연구만을 선별하였는데, 통계적 수치가 누락된 연구나 연구 설계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연구가 존재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음악치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임상으로써 연구자들은 연구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명확한 통계적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악치료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음악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의 종합적인 효과를 밝히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

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음악치료도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중 하나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대상의 음악치료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성록 (2001).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229-259.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law.go.kr>에서 2022년 3월 1일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에서 2022년 3월 1일 검색.
- 국가통계포털 (2021). **2020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https://kosis.kr/>에서 2022년 3월 1일 검색.
- 김기태 (2021).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95, 8-14.
-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애, 강경선 (2021). 조현병 환자 대상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3(1), 1-35.
- 김미영 (2021).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 **다문화콘텐츠연구**, 36, 45-82.
- 김범준(2017).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철 (20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우정한 (2012).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69-103.
- 김수림(2018). **다문화가정 한국남편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문화간 감수성, 성역할고정관념,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 (2011).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방안: 국제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희 (2020). **대인돌봄기반의 오르프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다문화가정 아동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리, 문소영 (2018). 창작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연구**, 21, 279-299.
- 김여경 (201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관련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형율과 영향요인:2007년 입국자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2), 141-174.
- 김종곤 (2014). 남북분단 구조를 통해 바라본 ‘탈북 트라우마’. **문헌치료연구**, 33, 205-288.
- 김지혜 (201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김진구 (201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개선방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나 (2021). **악기연주중심 음악중재연구 메타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최연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3), 435-456.
- 민정희 (2017).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음악치료 논문의 메타분석**.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31-1152.
- 박민음(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 (2014).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음악치료 연구 논문 동향 분석**. 석사

- 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옥 (2016),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치료효과 메타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 (2009). **집단음악치료가 결혼가정 아동의 우울, 불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에서 2021년 12월 30일 검색
- 서미옥 (2011). 메타분석 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론적인 제안. **교육학연구**, 29(2), 1-23.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성상환, 한광훈(2011).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문화 실태 조사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227-249.
- 성한나, 김영신(2017).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311-334.
- 신재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재현, 김상운 (2013). 다문화사회의 자생적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한국위기관리논집**, 9(2), 49-72.
- 신혜선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6, 79-110.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에서 2021년 12월 20일 검색.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http://www.mogef.go.kr/>에서 2021년 12월 21일 검색.

- 오선화, 김은영, 정진아, 전정민, 남민(2016). 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1), 61-85.
-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 (2016). 음악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203-225.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오은경 (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준, 황은영 (2018). 치료적 음악활동이 이주노동자의 우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4), 249-270.
- 오지연 (2022).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 문헌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영, 강경선(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Pilot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9(3), 693-718.
-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 이관형 (2011).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와 건강보호방안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5-39.
- 이명선(2008). **노래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환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 최유정,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모영 (2010). 예술심리치료에서 미적체험의 치료적 차원에 대한 고찰: 치료미학 논의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6(3), 81-104.
- 이우영. (2003).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 이주연, 박성옥 (2012). 음악을 적용한 한국어학습프로그램이 결혼이주 여성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

- 연구, 8(4), 73-93.
- 이주와 인권연구소(202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2020)**.  
<http://mihu.re.kr/>에서 2022년 2월 22일 검색.
- 이지인 (2019).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 음악치료 연구동향(2008~2018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동(2008).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2013). 다문화가정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2), 216-234.
- 임정희, 황은영 (2020).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2(1), 1-24.
- 임채완, 선봉규 (2015). 한국 기환이주 고려인 임금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직무만족 관계 분석. **재외한인연구**, 35, 199-228.
- 장덕호, 신인수 (2011). 교육학 연구방법으로서 메타분석의 발전과정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4(3), 309-322..
- 정은희, 이에스더(2020).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예술치료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44, 195-216.
- 정의용, 문지영 (2019).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167-196.
- 정진숙 (2016).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덕목 연계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23-48.
- 정현주 (2019).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개정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조경애, 강경선(2014). 집단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2(1), 85-103.
- 조원탁, 박순희, 서선희, 안효자, 송기범 (2014).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2판)**. 경기: 양서원.
- 지은진, 최지명, 김교현, 권선중, 박은진. 이민규(2012).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43-252.
- 진선주 (2015). 성인정신지체인의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 활용의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1), 17-33.

- 참여연대. (2018). **[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http://www.peoplepower21.org/>에서 2022년 2월 22일 검색.
- 최병철(2006).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 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애나 (2019). 음악 치료가 노인의 우울과 대인관계,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5(4), 231-246.
- 통일부 (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https://www.korea.kr/>에서 2022년 2월 11일 검색.
- 통일부 (20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https://www.data.go.kr/>에서 2022년 3월 1일 검색
- 통계청 (202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 <http://kostat.go.kr/>에서 2021년 12월 4일 검색.
- 통계청 (2021).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https://kostat.go.kr](https://kostat.go.kr/)에서 2022년 2월 22일 검색.
- 통계청 (2021). **2020년 다문화 인구통태 통계**. [https://kostat.go.kr](https://kostat.go.kr/)에서 2022년 2월 22일 검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북한이탈주민**. [http://encykorea.aks.ac.kr](http://encykorea.aks.ac.kr/)에서 2022년 2월 21일 검색.
- 함정현, 황창주, 소광섭 (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5, 423-452.
- 행정안전부 (2011). **2010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에서 2021년 12월 11일 검색
-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https://www.mois.go.kr](https://www.mois.go.kr/)에서 2022년 2월 21일 검색.
-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에서 2021년 12월 4일 검색.
-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jumin.mois.go.kr](https://jumin.mois.go.kr/)에서 2021년 12월 28일 검색.
- 홍민주, 순진이 (201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133-155.
- 홍은주, 여정운 (2010). 음악치료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835-844.
- 홍희래 (2016). *사회성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연구 메타분석*. 석사학위 청구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동 (2016). *알기쉬운 메타분석의 이해(2판)*. 서울: 학지사.
- 황성동 (2020). *R을 이용한 메타분석(2판)*. 서울: 학지사.
- Beyne, J. (2010). Meta-Analysis: An Introductory Overview.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N. S. (1994). Speech and Song: Implication for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 12(3), 8-13.
- Davis, W. B., Gfeller, K. E., Thaut, M. H. (2002). *음악치료학 개론*. 김수지, 고일주, 권혜경(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서출판 1992).
- Gooding, L. F. (2011). The effect of a music therapy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on improv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ocial skills deficits. *Journal of Music Therapy*, 48(4), 440-462.
- Higgins, J. P., Thompson, S. G., Deeks, J. J., & Altman, D. G.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es. *British Medical Journal*, 327(7414), 557-560.
- Liederman, P. C. (1967). Music and rhythm group therapy for geriatric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4(4), 126-127.
- Littell, J., Corcoran, J., & Pillai, V. (2008).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lanin, J., & Tanner-Smith, E. (2014). Introduction on Systematic Reviewing and Meta-Analysis Methods.
- Roederer, J. G. (1975). *Introduction on the physics and psychophysics of music: A good introduction to the subject (2nd ed.)*. New York: Springer
- Smith, M., & Glass, G. (1977). Meta-analysis of psychotherapy outcome studies, *American Psychologist*, 752-760.
-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 **Results in % by country weighted by w\_weight study**. <https://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2021년 12월 21일 검색

## ABSTRACTS

### A Meta-Analysis of Domestic Music Therapy Research for Multicultural family

Yoo, Jiyeo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size of music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meta-analysis. For the study, a total of 39 paper-suitable for the selection criteria were selected from among 1,731 domestic master's and doctorate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searched in the electronic database (RISS) until April 2022 were selected, and the overall average effect size and the difference in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variab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meta-analysis, a total of effect size of 282 were calculated from 39 theses. The overall average effect size was  $ES=0.31(p<.001)$ . The effect size of the study subjects was in the ord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ES=0.68, p<.05$ ) and foreign workers ( $ES=-0.62, p<.05$ ), and marriage migrant women ( $ES=0.12, p>.05$ ) and North Korean defectors ( $ES=-0.02, p>.05$ )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area ( $ES=1.42, p<.05$ ) showed a high effect size, followed by the social area ( $ES=0.72, p<.05$ ). the

psychological area( $ES=0.02$ ,  $p>.05$ )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method was in the order of musical play ( $ES=0.86$ ,  $p<.05$ ), instrument performance ( $ES=0.27$ ,  $p<.05$ ), and mixed ( $ES=0.27$ ,  $p<.05$ ), and the song-based( $ES=0.15$ ,  $p>.05$ )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vention, the effect size of the total number of sessions was shown in the order of 21 sessions or more ( $ES=1.39$ ,  $p<.05$ ), 10 sessions or less ( $ES=0.49$ ,  $p<.05$ ), and 11-15 sessions ( $ES=-0.34$ ,  $p<.05$ ), excluding 16-20 sessions( $ES=-0.28$ ,  $p>.05$ ).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time required per s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case of less than 40-60 minutes( $ES=-0.33$ ,  $p<.05$ ).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amples was the highest with less than 10 people ( $ES=0.77$ ,  $p<.05$ ) followed by 21 or more ( $ES=0.37$ ,  $p<.05$ ) and 10-15 or less ( $ES=0.35$ ,  $p<.05$ ). In the case of 16-20 people( $ES=0.12$ ,  $p>.05$ ),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meta-analysi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could be verified,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study subject, research purpose, intervention method, and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부록 1> 분석 대상 학위논문 목록

번호	연도	저자	제목	유형	출처
1	2009	정태미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한세대
2		이명선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한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명지대
3	2010	최문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박사	원광대
4		우현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사례 연구	석사	이화여대
5	2011	김지현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6		이슬지	음악프로그램이 새터민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7		신주연	이주여성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연구	석사	한세대
8	2012	이주연	음악을 적용한 한국어학습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	대전대
9		곽현진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10	2013	김경언	다문화가정아동의 어휘력발달과 자음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11		김숙정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석사	인제대
12	2016	윤선영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3		김성이	한국동요를 사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14		유지아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재한 몽골 중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15		박은주	음악심리치료가 쉼터 거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6		홍민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7		성한나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18		장윤정	오르프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9	2017	이기윤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20		이은선	음악치료가 탈북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임파워먼트 증진에 미치는 영향	박사	숙명여대
21		손솔이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22		정경혜	북을 활용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중앙대
23		김소리	창작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24	2018	박종임	노래 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	평택대
25		오준	치료적 음악활동이 이주노동자의 우울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26		정의용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27		오나솔	코다이 접근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	동아대
28	2019	이지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29		나은정	집단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광주대
30		이지영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탈북배경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31		김혜영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32	2020	임서연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33		김은정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뇌교육 기반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	국제뇌교육종합대
34	2021	김수희	대인돌봄기반의 오르프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다문화가정 아동 중심으로	석사	단국대
35		김지영	악기 앙상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	동아대

<부록 2> 분석 대상 학술지 목록

번호	연도	저자	제목	출처
1	2012	최애나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	2016	오선화 외	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
3		오선화 외	음악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4	2018	노해정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